

언론 사람

11
2021
VOL.257



04 인터뷰 人+人
배여운 기자

06 Newmedia of the World
기후변화 미디어 그리스트(Grist)와
저널리즘 혁신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코로나19 시대의 '체중 조절'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권력과 취재

Contents

2021 November

04

인터뷰 人+人

배여운 기자

06

Newmedia of the World

기후변화 미디어 그리스트(Grist)와
저널리즘 혁신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코로나19 시대의 '체중 조절'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권력과 취재

12

돋보기

한 생각 돌이키기

14

단어의 중력

고독

16

책의 밀도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책
- 장 아메리, 『늙어감에 대하여』

18

식물관찰자의 일기

우리 곁에서 피는 가을꽃, 국화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2

미디어 이슈 진단

언론개혁, '미디어 리터러시' 없이는 허탕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국민의 언론에 대한 높은 관심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Valery Rybakow <beautiful birch>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21년 노벨평화상은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권력 비판에 앞장서 온 두 명의 언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단체들은 언론인의 수상을 반기는 한편, 저널리즘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 이후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시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  사람 11월호는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배여운 기자를 만나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인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에서는 코로나19와 체중 조절의 관련성에 대한 한국과 영국 사회의 서로 다른 시각을, <새가슴PD의 분쟁현장 르포>에서는 분쟁지역 전문기자의 해외 취재원 확보 노하우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독'이라는 말의 함의를 담은 <단어의 중력>,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의 밀도>,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를 소개하는 <식물관찰자의 일기> 등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이 교차하는 11월, 언론  사람과 함께 생각과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 A T A J O U R N A L I S M

데이터 저널리즘, 깊이 있는 보도를 위한 좋은 방법



배여운 기자

- SBS 보도국 탐사2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기자
- 전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팀 데이터분석가
- 2020년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상 수상

Q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 데이터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데이터 저널리즘도 일반적인 기사들과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보도의 취재원이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가공, 분석해서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SBS '마부작침'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풀어내는 방식은 신문사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공직감시 등 다루는 주제는 유사하지만 방송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Q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대학졸업 무렵 뉴욕타임스의 인터랙티브 기사 '스노우 폴(Snow Fall)'을 보고 이렇게 새로운 보도 형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쓴 건지 궁금해 자료를 찾다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죠. 보통의 취재원들로부터 얻는 정보는 말한 사람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Q 지금까지 보도했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애착이 있는 아이템은 지방의회에 대한 공직감시 보도예요.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도 적고 관련 데이터를 얻는 것도 어려워 감시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속 보도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제21대 국회 법안 표결 데이터를 상대적인 이념 점수로 분석한 보도는 좀 다른 의미에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해외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사용한 통계적 방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사례여서 전문가 검토도 받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보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더라고요.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깊게 깨닫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죠.

Q 데이터 기반 보도는 자료 수집, 분석, 시각화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점은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를 피부에 와닿게 만드는 것이예요. 데이터 정제는 품을 좀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저널리즘적 가치를 갖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여전히 뉴스가 포털 중심으로 유통되다 보니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결과물이 독자,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자구책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있는데 다행히 구독자 수도 늘고 피드백도 많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독자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보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A 데이터 저널리즘은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 하나 중요해요. 그 과정이 기사에 다 녹아있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증한 양질의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니 한 마디로 '웰빙(Well-being)' 보도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Q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A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데이터 저널리즘은 지향점이나 목표가 아니라 좋은 탐사, 심층기획 보도를 위한 검증 도구이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니깐요. 수단과 방법에 매몰되기보다는 기사를 쓸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더 많은 기자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미디어 그리스트(Grist)와 저널리즘 혁신

그리스트(Grist)라는 기후변화 미디어는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 온라인 뉴스레터로 창간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그렇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거리감만큼이나 그리스트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셈이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2021' 수상자 목록¹⁾에 그리스트는 무려 네 번이나 언급됐다. 물론 12번이나 이름이 불린 뉴욕타임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단일 분야를 파고드는 소규모 버티컬 미디어임에도 디지털 보도의 품질과 깊이만큼은 여느 대형 언론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50명 내외 기자 규모로 이게 가능할까' 싶을 탐사 보도도 여럿 눈에 띈다.

1999년 창간한 그리스트는 디지털 전환기에 저널리즘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를 두루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강소 언론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서다.

1 실감형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 혁신

그리스트엔 실감형 저널리즘 기사 유형이 많다.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이라고도 부르는 디지털 스토리 포맷이다. 그리스트는 영상과 비주얼로 텍스트를 휘감고, 메시지를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명징한 데이터를 꺼내들어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평범한 기사는 '톤&매너'의 변주를 통해 매력을 발산한다. 이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무관심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리스트는 크게 3가지 유형의 독자를 상정한다.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기는 집단, 주목은 하지만 핵심 관심사는 아닌 집단,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집단이다. 특히 세 번째 집단을 충성 독자로 전환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주얼 에디터를 충원하고 디자인 파트너와 협업한다. 그 결과물들이 스토리텔링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 솔루션 저널리즘

그리스트의 슬로건은 '기후·정의·해결'이다. 해결책의 제안은 그리스트의 숙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더 픽스(The Fix)²⁾라는 버티컬 미디어를 추가로 띄웠다. 타이틀이 상징하듯 고치는 방법, 즉 기후위기 해결책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특이하다. '고치는 자 발견하기', '2200년 상상하기', '그리스트 50' 등 해법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내용에 집중한다. 바로 솔루션 저널리즘



이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자로서 저널리즘 역할을 재상정하는 모델이다. 그리스트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 집중한다. 그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해결 방안을 배우며 독자들과 공유한다. 현상, 위기, 문제제기에 주력하는 국내의 전통적 저널리즘 인식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3 데이터 저널리즘

전체 직원이 고작 50명 남짓이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 서만큼은 진심이다. 최근에는 별도의 부서도 출범시켰다. 인상적인 건 자체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진단,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포기의 물결-10억 달러를 능가하는 좀비 유전(Waves of Abandonment-The Permian Basin is ground zero for a billion-dollar surge of zombie oil wells)³⁾ 보도를 위해 '내버려진 유전'의 증가 추이를 예측하는 통계 모델을 개발⁴⁾했다. 그리고 그 분석 방법과 코드를 깃허브(GitHub)에 공개해 실력도 과시했다. 기후변화 보도는 수많은 데이터와의 씨름이다. 미세한 기온, 수온의 변화 속에서 큰 위기의 흐름을 간파해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작업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셈이다.

그리스트는 현대 혁신 저널리즘의 집적체다. 솔루션 저널리즘에 집중하면서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보이고, 데이터 분석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작업은 여윌든 넉넉한 글로벌 유력 언론이 아니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전

체 직원 50명 내외의 비영리 언론사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건 누가 봐도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편집국 규모만 200명 넘는 국내 언론사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목은 속제들이다.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가 2021년에 그리스트를 수상자 반열에 올려둔 이유일 것이다. 사실 창업자인 칩 길러(Chip Giller)는 그리스트를 시작할 때 3가지 원칙⁵⁾을 정했다고 한다.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할 것, 불경스런 유머와 심각한 주제를 결합시킬 것, 비영리로 운영할 것 등이다. 인터넷이 온전하지 않았던 1999년에 온라인을 중심에 두겠다는 포부도 그렇거니와 불경스러운 유머를 스토리텔링의 기조로 잡았다는 것 또한 놀랍다. 기후변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풀어내고 까다로운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유머를 변용하는 접근법을 취해온 그리스트의 전통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혁신에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트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저널리즘이 돈의 문제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연 수익 77억 원 규모⁶⁾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탁월한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생산한다. 변화무쌍한 독자들 특히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독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의지가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데려오기 어려운 독자일수록 더 뛰어난 저널리즘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그리스트는 몸소 실천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를 찾기 어려운데다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의 기운이 좀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 때, 그리스트가 한국 저널리즘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또렷해 보인다. 독자들을 이야기에 몰입시키기 위해 디지털에 더 많은 투자를 감행하라는 것,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 말이다.

1) <https://awards.journalists.org/winners/2021/>

2) <https://grist.org/fix/>

3) <https://grist.org/abandoned-oil-gas-wells-permian-texas-new-mexico/>

4) <https://grist.org/energy/scale-of-texas-new-mexico-abandoned-oil-wells/>

5) <https://www.aspensojo.com/news-and-profiles/2017/07/chip-gillers-beacon-in-the-smog>

6) <https://www.lenfestinstitute.org/solution-set/how-grist-is-broadening-its-reach-by-focusing-on-the-intersectionality-of-climate-change/>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막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던 무렵, 영국은 난데없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다. 하루하루 코로나19를 막아내느라 정신없는 주체에 무슨 난데없는 비만과의 전쟁이란 말인가. 비만을 방지한다며 저녁 9시 이전, 즉 미성년자가 TV를 보는 시간에는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식당 메뉴에도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정크푸드는 묶음으로 싸게 팔 수 없도록 했다. 식음료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와 같은 초강경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총리인 보리스 존슨의 개인적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존슨 총리는 작년 3월 세계 정상 중에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중환자실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다. 퇴원을 한 이후 회복 속도 역시 느렸는데, 비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스스로도 자신이 지나치게 뚱뚱했다고 인정했다.

비만한 경우 코로나19에 걸리면 훨씬 위험하다고 한다. 잉글랜드공중보건청(PHE)에 따르면 비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을 40% 정도 높인다고 한다. 영국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위독했던 확진자 중 비만인 경우는 7.9%였다고 하는데, 고도비만의 경우 사망 위험은 90%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체중 조절’

영국의 비만 인구는 서유럽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성인 3분의 2가 과체중이고, 초등학교 졸업연령 아동의 3분의 1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심하게 앓거나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규모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정크푸드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이었다. 즉, 정부가 굳이 비만 문제에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당분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 등에 부과되는 소위 ‘설탕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비만과 관련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다.

한국 역시 코로나19와 비만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지만 주목하는 부분은 코로나19 시기 체중 증가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6%가 코로나19 시기 동안 3kg 이상 몸무게가 늘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시기의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가 급증했다고 하니, 미성년자 비만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는 듯하다. 즉, 비만 때문에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을 걱정하는 영국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으로 체중이 증가했





으니 다시 감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비만 때문에 코로나19로 죽을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든, 코로나19 때문에 비만해질 것을 걱정하든, 체중 조절은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초미의 관심사로 보인다. 이는 물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한국이나 영국의 경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체중 조절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1천만 명 늘어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세계 기아 인구는 2019년 6억 9천만 명에서 2020년 1억 3천만여 명이 증가한 8억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즉, 한편에서는 과잉 소비가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류는 현재 필요한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식량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식량 폐기물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영국에서는 유명 가수 아델이 45kg 정도를 감량한 후 신곡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새로운 노래들보다도 살이 빠진 데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춘 듯이 며칠 전 더 타임스(The Times)에서는 '손쉽게 살 빼는 방법 열 가지'라는 기사를 실었다. 읽어봤더니 결국은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고칼로리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맛있는 음식을 덜 먹고,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라는 것 아닌가. 그러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살이란 찌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려우니 이토록 체중 조절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이겠다.

하지만 다른 노력들에 더하여, 음식을 사기 전에, 주문하려고 앱을 열기 전에, 심지어 섭취하기 전에, 본인이 이 정도의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즉, 본인을 위해서나, 수요를 예측하고 그보다 조금 과도하게 음식물을 생산할 관련 업체를 위해서, 혹은 지구 자체를 위해 과연 좋은 일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권력과 취재

해외 취재의 기본은 '일정 확정'입니다. 사전에 취재가려는 나라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인터뷰나 취재협조를 미리 구하고 그 일정에 맞춰 비행기표를 삽니다. 선진국이야 코디네이터나 미디어 담당을 통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체계가 없는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은 공문을 보내도 소식이 깜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도 무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취재 일정을 길게 잡고 직접 현지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처음 취재 다닐 때는 저들은 왜 응답을 안 하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결국 아쉬운 것은 취재진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방법을 찾는 수밖에요.

한 달 취재 일정이면 보름 정도 더 일찍 가서 섭외와 일정 확정만을 위해 며칠을 써야 합니다. 레바논에 처음 취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 신도가 반반, 거기에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 있어서 각 종파와 그 종파의 리더 등을 인터뷰하려면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공문 배달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직접 들고 다니며 담당자에게 배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그냥 종이만 주고 오면 언제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주로 한국산 화장품이나 배터리 충전기, 휴대용 USB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면서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좀 빠릅니다.

이렇게 해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그다음 단계는 책임자 면담 요청입니다. 언제 누구랑 인터뷰할 수 있는지 취재 협조는 어떻게 해줄 건지 높은 사람과 서로 얼굴 보고 요청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때도 선물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돈을 안 주면 이 사람이 양심 품고 저의 모든 취재를 원천 봉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과 약간 디스크아웃된 현금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때론 밥도 삽니다. 참 치사합니다. 하지만 취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간혹 일찍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선물을 달라는 그들만의 액션입니다. 무시할 수도 없는 이 연락에 소환되어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오세요.” 다음날 가면 또 다른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 다 듣고 “내일 오세요.” 그다음 다음날도 내일 다시 오라는 무한 반복. 이렇게 보름 가고 한 달 갑니다. 레바논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섭외하는 시간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해외로 취재 가면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호텔비, 식비, 통역비, 차량비 등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00불 이상입니다. 본격적인 취재 시작도 전에 이렇게 돈을 쓰면 정말 휘청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본격 취재가 시작되도록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내일 오라는 말의 무한 반복은 사람을 참 지치게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최초로 익힌 아랍어와 스페인어가 “내일 오세요.”라는 의미의 “부크라 인살라”, “마나나 케세라”입니다. 아랍이나 남미나 언어만 다르지 모두 내일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내일 오라고 합니다. 취재비는 계속 나가고 저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역시 끈기와 제작비입니다. 무조건 버팁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08년에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라는 나라를 취재간 적이 있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공을 들여 정부 인사들을 잘 섭외했는데 그만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2013년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 들어선 이집트 정권은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 단체가 만들었는데 이쪽 섭외 라인을 나름 열심히 갈고닦았습니다. 앞으로 이집트 취재 오면 이 라인만 잘 가동해도 취재시간을 많이 단축할 거라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압델 파타 엘시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2년간 갈고닦은 제 모든 인맥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참담함이란...

그렇다고 주저앉아 비관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노선을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군부에 쟁싸게 줄을 맵니다. 과거 정권 인사들은 죽거나 감옥으로 가버려 어차피 의리를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만이 저의 취재를 좌우합니다. 요즘도 쿠데타가 성공할 기미만 보이면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에서 한자리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포지션을 잘 취해야 취재가 잘 됩니다. 그런 제 자신이 참 비굴합니다. 내전이 났을 경우에도 누가 승기를 잡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반군 지도자가 정권 창출에 성공하면 그쪽으로 노선을 잡고 취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서아프리카 나라에 취재 갔을 때 반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 내전이 끝난 2000년 이후에도 밀림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고 지역 무장 파벌들 간의 크고 작은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투가 끝나면 누가 승기를 잡았는지 혹은 다이아몬드 광산의 주인이 누가 되었는지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소식은 느리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현자인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양 진영을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부상자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고 조용하면 그 진영은 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고 있다든지 노랫소리가 나오면 이긴 겁니다. 이런 측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취재가 되냐 안 되냐에 관한 것이기에 자동으로 축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축을 발달시키며 비굴하다가도 한국에 오면 제가 많이 당당해집니다. 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디 줄을 서야 할 일도 없고 정계를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아무할 필요도 없고 비굴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만 가슴 펴고 다니는 당당한 새가슴 피디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기

苦海無邊,

고해무변

回頭是岸.

회두시안

—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지만,
고개를 돌리면 그곳이 피안이다.

불가(佛家)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고해(苦海)]’라고 한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난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수 없고 늙지 않을 수 없으며 병들지 않을 수 없다.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에 매몰되어 고개를 돌리지 못하면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다. 이 때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하고 고개를 돌려서 살피는 행동, 즉 한 생각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의 구절은 불가에 전해지는 명구이다. 힘든 상황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다. 그 상황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고통을 정의한다. 고통 너머를 보는 시야가 있으면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이 된다. 이를 달리 풀이한 것이 “한 생각 돌이키니 그곳이 극락이다.”라는 말이다.

한 예를 들어, 깨닫지 못한 자에게 늙어가는 것은 고통으로 와 닿는다. 그러나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니 편안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여기면서 자연 운행의 한 과정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면 늙어가는 것은 행복이 된다. 장자(莊子)는 일찍이 “(대자연이)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俟我以老, 息我以死.)”라고 했다. 자연의 한 존재로 살다가 그칠 줄을 알라는 가르침이다.

부처가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고통의 바다를 건너 행복한 삶을 이루는 비결을 가르친 것이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성제(四聖諦)이다.

고(苦): 사람의 삶이란 원래 고통이다. 그 고통은 크게 분류하여 생(生), 로(老), 병(病), 사(死) 네 가지이다. 생(生)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큰 고통을 겪는다. 태어난 뒤에도 고통 때문에 수시로 운다. 배가 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불편해서 운다. 소년, 청년, 중년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마주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고해이다.

집(集):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에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해 겪는 육체적 고통이 있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 그것을 번뇌라고 한다. 용수보살(龍樹菩薩)은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탐욕[탐(貪)], 성냄[진(瞋)], 어리석음[치(痴)]의 삼독(三毒)을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했다. 탐욕은 나의 인격을 손상하고 대인 관계를 잘못되게 하

며, 일을 그르친다. 한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이어진다. 그것들이 고통의 원인인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치(痴))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의 본질은 이 어리석음, 곧 무지에 있다. 어리석음이야말로 삼독의 근본이고 삼독은 번뇌의 근본이고 번뇌는 고통의 근본이라고 하겠다. 달라이라마는 말씀하기를, “나는 모든 고통이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자비와 함께 이기심과 탐욕 제거를 통해 달성되는 평화와 만족감에서 옵니다.”라고 하여 고통을 없애고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제시했다.

멸(滅) : 고통의 원인을 없앤 상태이니 고통을 초월한 상태, 즉 열반이다.

도(道) : 고통[苦]의 원인[集]을 없애는[滅] 길[道], 즉 열반에 이르는 바른길[제대로 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여덟 가지의 바른길[팔정도(八正道)]’이 있다.

1. 바르게 보는(아는) 것이다.[정견(正見)]
2. 바르게 봐야 바르게 생각하고,[정사(正思)]
3. 바르게 생각해야 바르게 말한다.[정언(正言)]
4. 바르게 말해야 바르게 행동하고[정업(正業)]
5. 바르게 행동해야 바르게 산다.[정명(正命)]
6.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정진하고[정정진(正精進)]
7. 바르게 정진해야 바르게 명심하고,[정념(正念)]
8. 바르게 명심해야 안정의 경지에 든다.[정정(正定)]

‘바르게’는 ‘제대로’의 뜻이다. 제대로 알아야[1] 지혜로워지고[2-7] 결국

에는 안정의 경지, 즉 열반의 경지에 든다[8]. 이는 수행하는 불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누구든지 깨달아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주역(周易)·정괘(鼎卦)·초육(初六)》에서, “세 발 달린 솥이 발이 넘어졌으나, 나쁜 것을 꺼냄이 이롭다.(鼎顛趾, 利出否.)”라고 했다. 요리를 하는데 발이 넘어져 솥 안의 음식이 쏟아지면 그 난감함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역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생각을 돌이켜, 솥을 깨끗이 닦아내고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역경을 기회로 삼아 힘과 용기를 얻는다. 역경은 사람들을 강하게 해 더 큰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을 준비시킨다. 이 이치를 맹자는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들[옛 위인들]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했고 그의 근육과 뼈를 힘들게 했으며, 그의 살과 피부를 마르게 했고 그의 몸을 궁핍하게 했으며, 일을 행함에 그가 하는 바를 거스르고 어지럽혔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동요시키고 성격을 참을성 있게 해서 그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도움을 더해 주었다.(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맹자·고자하(告子下)》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하면 먼저 갖은 고통으로 시련을 주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역경을 겪으면서 단련되어 큰일을 이룬 이들의 예를 많이 보아 왔다. 역경과 갈등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다.





단어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너는 길을 떠난다. 길 위에서의 날들이 이어지면서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다는 욕망이 차오를 무렵, 너는 작은 마을에 당도한다. 둥글고 납작한 돌을 쌓아 만든 낮은 집들이 낮은 어깨를 맞대고 모여 있는 그 마을은 온통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마티스의 표현을 빌면, '아침 여섯 시 삼십 분에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올리브나무'와 '모든 것을 풍요로운 색채로 물들이는 은빛 햇살'이 무성하게 흘러넘치는 그곳은 '보리마을(Village des Bories)'이다. 론 강 하류에서 알프스 산맥에 이르는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너는 아침 여섯 시 삼십 분에 창을 활짝 여는, 올리브나무의 은빛 햇살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렸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벗어 던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어나 자란 너의 터전, 너와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 네가 근근이 얻어낸 보잘것없는 재산과 명예까지.

너는 천천히 마을을 둘러본다. 세월이 차곡차곡 눌러 붙은 벽, 차갑게 식은 아궁이, 금이 간 식기가 너의 반짝이는 눈에 담긴다. 16세기부터 사람이 살던, 그러나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떠난 마을이다. 이제 마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건 가을 햇살 속에서 빛나는 올리브나무들뿐이다. 별처럼 반짝이는 나뭇잎들 사이로 바람이 통과할 때마다 시간은 역류한다. 한순간, 한 시간, 하루, 한 달, 일 년, 한 평생에 고여 있던 누군가의 시간들이 무수히 흘러져 은빛 가루로 날린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언젠가 이곳에서 작은 아이들이 웃었을 것이다. 나뭇가지와 풀잎을 가지고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놀다가,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품고 어른들은 불을 때어 밥을 지었을 것이다. 가축을 돌보고, 감자를 심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별을 보고, 사랑을 하고, 이별을 겪고, 또다시 힘을 내어 살아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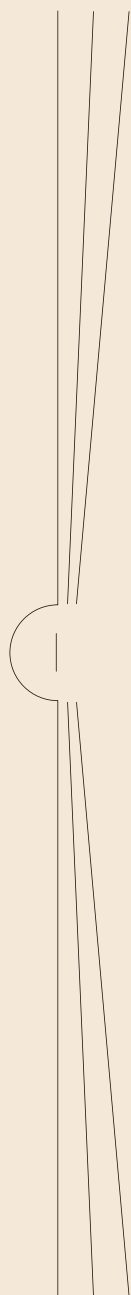
외로울 고(孤)는 아들 자(子)에 덩굴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그린 오이 과(瓜)를 붙인 글자이다. 홀로 매달려 있는 열매처럼 외로운 아이의 이미지는 '외롭다', '의지할 데가 없다', '멀다', '(고아로) 만들다'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홀로 독(獨)은 개 견(犬)에 애벌레 촉(蜀)이 더해진 것이다. 촉(촉→독)은 발음 역할만 하는 것이고, 개는 싸우지 않도록 한 마리씩 떼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홀로', '오직'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왜 하필 애벌레일까? 개 한 마리가 오도카니 앉아 있고 그 곁에 애벌레가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땅에 바싹 붙어 있는 작은 애벌레는 개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비가 되면 팔랑팔랑 날아다니며 개와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미래를 알 리 없는 개와 애벌레는 각자 무리하고 쓸쓸한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겠지. 서로가 서로에게 무의미한, 함께 있어도 홀로인 시간이다.

네가 머물고 싶은 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다. 그 어떤 각오나 결단, 노력이나 행운도 너를 그곳에서 살게 해줄 수는 없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너의 등 뒤에서 파도처럼 바람이 친다. 나뭇잎들이 웅성거린다. 가을은 올리브나무 사이로 흐르다 가볍게 날아 천천히 너의 옷깃을 파고든다. 솜뭉치 같은 한 줌의 고독이 네 옷깃을 헤치고 들어와 네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

고독은 무엇인가 존재하다 사라진 자리이다. 아궁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 그릇에 가득 담겼던 음식이 사라진 자리, 물방울처럼 망울망울 터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 감자의 뿌리가 시들고 마른 자리마다 고독이 고여 있다.

고독은 또한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며 아직도 남아 있는 무언가이다. 아직도 쏟아지는 햇살, 아직도 빛나는 은빛 나뭇잎들, 아직도 잊지 못한 누군가의 얼굴 위로 고독이 어른거린다. 생의 갈피에 한 번 꽃힌 기억은 계절과 함께 번번이 돌아온다. 온기는 식고 기억의 빛은 바래도 고독은 찬란하다. 쓸쓸하고 아름답다.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책
장 아메리,
『늙어감에 대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장 아메리는 '자유죽음'(자살)을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늙어감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노인이 되는 과정을 처절하게 경험, 관찰한 뒤 세상에 스스로 작별을 고했다. 이 책은 삶과 단적인 죽음을 고찰하는 한편, 무(無)에 다다르기 전 서서히 와해되는 인간의 늙음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다.

연인을 사귄다면 늘 헤어질 것을 먼저 상상했던 20대의 나는 40대가 되자 아직 오지도 않은 노년을 상상하며 겁을 집어먹곤 한다. 미래의 절반은 기대로 차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무겁게 짓눌러온다. 언젠가 미래학자 박성원이 내민 '미래를 비판적/낙관적으로 보는가'라는 설문지에 응했던 결과는 '낙관'으로 나왔던 나였건만 이제 점점 그 반대편의 정서도 체득하고 있다.

아메리는 '늙음'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지만, 늙어가는 독자를 어루만져 주진 않는다. 독자가 불안해 책을 덮고 서성이게 할 만큼 두려움을 각인시킨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독서하는 내내 이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메리는 A라는 인물을 설정해 모든 늙음의 증상들이 그를 통과하도록 한다. 독자로서 A는 처음에 아메리 자신같이 느껴졌지만 읽을수록 점점 '나' 같다. 40대 중반의 나에게도 이미 '쌍인' 시간이 많은데, 그것은 내 생기를 바닥내면서 두께를 불러왔다. 이 책은 나처럼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이 제 몸과 정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한편,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거나 임종에 관해 들었던 고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대부분의 소설은 등장인물을 등장시킬 때 늘 외모를 언급한다. 가장 많이 묘사되는 유형은 "뚱뚱한" 사람과 늙은이로, 둘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외형을 자주 맞는다(예컨대 "뚱뚱한 축에 들 만큼 몸집이 크고 굵은 다리가 꼴사납게 드러났다"라는 구절처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증오한다. 눈 위로는 마치 모자처럼 생긴 게 머리라고 걸려 있으며, 눈 아래로 보이는 넙데데한 얼굴은 무슨 가방인 것만 같다." 노인이 돼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자기 얼굴이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사실 40대 때부터 겪는다. "저기 시간 있으세…… 아, 아닙니다." 나는 지난해 길을 걷다 뒤에서 거는 말에 돌아보던 중 이 말을 두 번이나 들었다(이들은 '결혼하셨겠네요?'라며 급히 물러섰다). 청춘의 끝물을 넘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나이대에 위치한 사람은 자신의 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젊은이들의 외부 세계에 놓인다. "세계로부터 추방당한 얼

굴”은 노인들의 전유물이다. 만약 그런 노인이 자신을 연민하며 거울을 더 자주 본다면 그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이다. 특히 이는 멜랑콜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자기소외적 나르시시즘이라 할 수 있다.

노년을 맞는 속도가 ‘불평등’과 관계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아메리는 그중에서도 “모든 환상을 깨끗이 잃어버린 ‘낙오자’”, 즉 실패자에게 시간이 가장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 낙오자는 자기 자신만의 좌절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좌절”이다. 체념하는 사람에게 노년이 빨리 찾아온다는 걸 나는 『문 뒤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를 쓴 김미희 작가의 아버지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마흔다섯에 죽을 거야.’ 이걸 아내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한 작가의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을 앓으며 반복해서 한 말이다. 유복했던 어린 시절이 그로 하여금 허영심을 좇게 했던 것일까. 그는 가문의 영광스런 순간들을 되새기며 풀리지 않는 일을 잘 해결해보려 했지만 술에 빠졌고, 그리하여 마흔다섯에 세계로부터의 이탈을 겪었다. 낙오자들은 타인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길 것을 미리 내면화해 가속도가 붙어 빨리 추락한다.

아메리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는 아니고 저널리즘적 글을 쓰지만, 이를 능가하는 비범함을 곳곳에서 보인다. 노년에 대한 그의 가장 빛나는 통찰은 노인들이 자기 삶을 ‘시간’으로 인식하며, ‘공간’(세계)으로부터는 버림받는다는 걸 간파한 데 있다. 노인이 되면 여생을 ‘시간’으로만 받아들일 뿐 세계에 편입돼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조촐한 공간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들은 류머티즘을 앓아 산에도 못 올라가고 차가운 바닷물도 못 즐긴다. 그리고 중국에는 자기 공간에서도 들어내진다. 시체가 된 채로.

집 주변이 개발로 몸살을 앓아 나는 요즘 새집을 구하러 다니는 중이다. 내게 집은 인생 말년에 죽음을 맞는 곳이라기보다는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각 집안의 사정을 들여다보게 됐다. 그중 A주택은 화려하게 꾸며졌는데, 그 세세한 손길을 주었던 여주인은 집을 짓고 얼마 안 돼 죽었다고 한다. 나는 고인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터가 안 좋을지 모르다’는 말로 겁을 줬다. 찝찝한 기분이 들어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여기는 죽음에 거의 다가간 한 노인이 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 사연을 들어보니 노인이 종종 치매를 앓아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이에 자식들



이 집을 내놨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집을 찾아다니지만, 거기서 하나의 죽음, 또 하나의 거의 꺼져가는 노인을 마주한다. 허름한 집뿐 아니라 이제 막 지어진 집들조차 죽음을 간직하고 있다.

“늙어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등을 돌린다는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을 나는 일하면서 종종 느낀다. 등을 돌리는 주범은 나이고, 등 돌림을 당하는 이들은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늙어버린 작가들이다. 편집자들은 늙은 저자에게서 눈을 거두어 젊은 작가들에게 애정을 쏟곤 한다. 그런데 가끔 만나는 어른들은 젊음과 늙음을 저울질하는 이런 나에게 죽비소리같이 어떤 깨달음을 준다. 얼마 전 북한산을 같이 걷은 70대의 노시인의 말들은 (비교적) 젊은 동행들을 각성케 했다. 노년에 그의 독서는 『논어』, 『주역』, 『장자』 등 고전으로 좁혀지고 있다. 몇 평 안 되는 단촐한 작업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열매가 들어 있었다. 실로 놀라운 기분으로 맛본 과육의 풍성함이어서 우리 산행은 정신적인 양분으로 넘쳐흘렀다. 그건 세상을 집중해서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단단한 확신들이었다. 헤어질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살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아마 없겠지요?” 우리 동행들은 속으로 한 두 번은 더 만날 수 있기를 빌었다. 그날 들려준 그 말들을 늙어가는 우리가 어느 날 완벽히 체감할 때쯤, 다시 만나 노시인이 해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우리 곁에서 피는 가을꽃, 국화



국화의 계절

시골에서 자란 저는 썩을 사는 것보다 캐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풀밭에 나가면 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어린 이였죠. 도시에 살게 되면서 저는 종종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을 잘 모르는 이들이 썩과 헛갈려 국화 썩을 함께 캐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수줍어 말리지는 못하고, '국화를 먹기도 하니 몸에 그렇게 나쁜진 않을 거야', '썩국에서 국화차 향기가 날지도 몰라.', '봄에 썩인 줄 알고 캐는데 가을에 예쁜 국화꽃을 발견하면 얼마나 놀랄까?' 같은 생각을 했었답니다. 국화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관상식물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꽃이 피다 보니 푸른 잎만 있는 봄, 여름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심지어 봄에는 이렇게 썩과 헛갈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여겨질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한 식물, 이런 국화꽃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가을을 보내는 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국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곁의 국화

지금 이 가을, 국화의 계절입니다. 사군자 중 하나인 국화는 날이 추워지는 가을에 피어나는 꽃이라 하여 고고한 삶과 절개를 뜻합니다. 가을 산에는 야생 국화가 피어 사람들은 국화꽃을 따다 차를 만들고 국화주도 담습니다. 무엇보다 국화는 관상용으로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국화는 꽃의 크기나 색이 다양하며 소담하게 꽃을 피웁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고 열매가 익는 식물들과 달리 풍성한 꽃을 피워 반갑게 느껴지는 식물이지요. 푸르름이 사라져 가는 쓸쓸한 계절에 화사함을 선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곳곳에서 국화축제도 열립니다. 키우기 쉽고 모양을 내기 좋아 국화로 조형물을 만들거나 다채롭게 꽃밭을 조성합니다.

국화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국화는 중요한 식물입니다. 중국에서 국화는 우아함과 순수함의 상징이며 일본에서는 왕실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국화에 대해 알아보면 국화 사랑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화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국화라고 부르는 식물의 형태를 떠올려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국화라고 부르는지, 대표적인 형태는 무엇인지, 야생 국화는 어떤 종인지 막상 대답하려면 막막해지지요. 국화는 국화와, 국화속에 속합니다. 국화속(*Chrysanthemum*)에는 약 40종이 있지요. 이 야생종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에 분포하고 특히 중국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레국화(*Centaurea cyanus*)나 삼잎국화(*Rudbeckia laciniata*)처럼 한글 이름에 국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분류학적으로는 각각 수레국화속(*Centaurea*)과 루드베키아속(*Rudbeckia*)에 속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국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약 40종의 야생 국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국화일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국화는 거대한 잡종, 품종 복합체입니다. 몇 개의 야생종이 교배되고 개량되기를 반복해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었고 이런 원예종들을 통틀어 국화라고 부릅니다. 국화의 기본 학명은 모두 *Chrysanthemum × grandiflorum* 혹은 *Chrysanthemum morifolium*인데 이 학명 뒤에 품종을 개발한 원예가가 원예품종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예종들은 모두 야생종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식물이지요.

원예종의 대명사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국화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과 유럽,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이 어떤 순서로 교배되었는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지요.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인간의 품종 개발 열풍과 국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현재 국화는 2~3만 종의 품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화를 잘 모르는 이들은 꽃의 지름 크기에 따라 소국, 중국, 대국 정도로 간단하게 구분하지만, 수많은 품종에서 알 수 있듯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국화를 고도로 디자인해 왔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도 줄기를 자르거나 고정시켜 꽃의 개수나 키를 정확히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국화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밤보다 낮의 길이가 짧은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마저도 빛을 조작하여 원하는 날에 꽃을 피우게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색으로 물들인 것이 아닌 유전자 조작을 통해 파란 국화를 개발했습니다. 국화의 특성상 존재하지 않는 파란빛을 얻기 위해 파란 꽃이 피는 다른 식물 종의 유전자를 가져와 개발하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국화는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질까요?

국화를 바라보며

열매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작물을 수확합니다. 자연과의 투쟁이 필요했던 옛날보다 풍족해졌지요. 인류의 역사에서 식물을 인공적으로 교배하고 조작했던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풍요로운 가을에 국화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친근한 식물들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뉴스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



10월 19일 국회에서 위원회를 포함한 14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시정권고 건수 증가 관련 질의가 있었다. 이석형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 동의를 필수적인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평소 공정, 중립, 신속이 위원회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늘 생각하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창립 40주년 기념 대학생 모의조정대회 시연 및 시상식 개최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학생 모의조정대회 시연 및 시상식이 10월 29일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7개 팀이 참여했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동상 2팀과 모의조정 시연을 할 최종 결선 2팀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수상자로 선정된 4팀에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최종 시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수상팀
금상	언덕(나가영, 김정민, 김지호, 박선호, 한제경)
은상	근퇴속신(이소현, 신다현, 정인화, 최서영)
동상	스탠바이(이희연, 김성연, 문서연, 송서영)
	언중유골(윤지유, 신서연, 최고은, 홍지혜)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개최 예정

위원회는 11월 8일 지역 언론인 대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언론인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언론의 혁신전략, 언론사의 영상 활용법,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는 모두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Focus

궁금하지만 어려운 언론법제,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에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위원회는 공감블로그(<https://blog.naver.com/pac3083>)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소식과 함께 언론법제, 최신 미디어 트렌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최신 미디어 관련 법률 이슈를 카드뉴스, 모션그래픽 등으로 제작해 보다 쉽고 재밌게 언론보도 관련 법적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공감블로그 주요 콘텐츠를 소개한다.

1. 오늘의 언론법제 topic

간부라도 낼 건 내야죠! 글로벌 기업과 디지털세

<https://blog.naver.com/pac3083/222547628910>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와 함께 대두된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의 배경과 해외동향을 정리했다.



위원 동정

중재위원 사퇴 및 신임 중재위원 위촉

일신상의 사유로 중재위원직을 사퇴한 중재위원 및 새로 위촉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 사퇴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사퇴일자
	서울제2중재부	강광배	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	2021. 9. 7.
	제주중재부	김건일	(전) 한라일보사 사장	2021. 10. 11.
- 위촉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위촉일자
	서울제2중재부	정동식	(전) 경향신문 부사장	2021. 10. 5.

임상혁 위원,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주제 발표

임상혁 위원(서울제6중재부·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은 10월 19일 개최된 ‘2021 콘텐츠조정 포럼’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법조계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가 모여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경희 위원, 제48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취임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10월 16일 제48대 한국언론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신임 언론학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1년이다.

천현숙 위원, ‘정부 광고 대행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토론 참석

천현숙 위원(충북중재부·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10월 13일 한국광고PR실학회에서 개최한 ‘정부 광고 대행 제도의 현재와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광고 운영 방식 변화 및 정부 광고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 언론위 history

언론중재위원회 40년사 돌아보기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https://blog.naver.com/pac3083/222535769346>

언론관련 판결문을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역사를 소개한다.



3. 모션그래픽

기사 제목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pac3083/222520687586>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모션그래픽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언론개혁, ‘미디어 리터러시’ 없이는 허탕

지난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국회 내에 미디어특위를 설치하고 올 연말을 시한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디어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 아니라 몇 가지 언론 현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각각의 처지도 막다른 골목에 처하자 명분 있는 출구를 모색한 결과이다. 어찌 됐거나, 이 같은 목표와 방법의 전환은 언론계나 학계, 시민사회 일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급변한 언론환경 속에서 전반적인 언론 대책 정비는 외면한 채 유독 ‘언론중재법 개정’ 공방에만 몰두하다 비로소 한꺼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위가 다루기로 한 법안은 모두 4가지, 기존의 언론중재법외에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을 추가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유투버 등 1인 미디어가 가짜뉴스의 큰 온상이므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한다’는 이유다. 또 방송법 개정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여야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기형적 지배구조를 새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며, 신문법 개정 역시 ‘또 다른 가짜뉴스 생산의 근원지인 인터넷뉴스와 포털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특위의 작업을 ‘언론개혁’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실상 이 현안들은 이제 와서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 묵은 과제들이다. 또 과연 연말까지 소기의 결과물을 내놓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책이 전혀 없다. 특위의 입법계획에도, 정부의 방침에도 진전된 것이 없다.

리터러시(Literacy)는 문해력(文解力), 즉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선각자들이 “배워야 산다”며 민중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에서부터 지금도 미처 글을 못 배운 노인들에게 교육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까막눈 깨치기’는 한동안 범사회적 운동으로



자리 잡아 정부는 물론, 각 사회·종교단체, 학생들까지 팔을 걷고 나서기도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오늘날은 바로 디지털 미디어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다.

논란이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부터 생긴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못지않게 당연히 서둘러야 할 중대한 일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입법과 정부의 정책입안이다.

현재 가짜뉴스 대책은 3가지 정도. 입법규제,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것이다. 독일과 호주, 싱가포르, 러시아 등 18개국이 많은 논란 속에 이런저런 규제법을 제정했다(독일처럼 가짜뉴스법이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선진국들일수록 규제입법보다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관련 입법과 정책 시행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입법 시도가 불발에 그친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관련 예산을 대폭 투입해 초등학교부터 각급 학교, 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입법규제보다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 기업과의 협조 속에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많은 주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법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몇몇 정부 기관과 일부 민간단체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나 사회단체의 교육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관련부처는 여러 곳으로, 정책입안은 더디고 교재개발과 교사양성 등 세부계획도 면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언론개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빼놓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키 워 드 로 보 는 4 0 년 사

언론 사람



11월은 언론중재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이 시작된 달입니다. 2009년 'PAC News'라는 내부 소식지가 대외 홍보를 위한 매체 <언론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인데요. 이후 12년째 매월 다양한 주제, 전문적인 필자들의 기고를 중심으로 친근하고 흥미로운 언론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위원회 소식' 코너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적 순간들이 차곡차곡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언론  사람>은 지면 증면, 편집디자인 변경, 코너 개편 등 변화를 거듭해왔는데요. 콘텐츠를 전달하는 채널도 지면, 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언론  사람>은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달라질 <언론  사람>에 많은 기대와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